

스타이너의 人智學 : 괴테아눔과 발도르프 학교

The Steiner school : offspring from the Goetheanum

이 화 룡*

Lee, Hwa-Ryong

본 글은 학교 건축에서 교육이념이 어떻게 공간적 또는 형태적으로 표상되고 실천되어지는가를 루돌프 스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괴테아눔(Goetheanum)과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¹⁾를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1920년 탄생한 괴테아눔과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발도르프 학교는 그 시□공간적 차이는 있으나 루돌프 스타이너의 인지학(anthroposophy)²⁾에 바탕을 둔 예술과 교육에 대한 통찰과 사상이 건축 어휘들로 전환되어 학교 건축에 반영되고 있는 점에서는 많은 공통점들이 발견된다. 필자는 스타이너의 인지학과 교육 이념 그리고 학교 건축을 이어주는 연결 어휘로 전체성(wholeness)과 정신성(spirituality)을 선택하여 교육이론과 학교 건축에 대한 매개적 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발도르프 학교는 기존의 학교교육 형태와 사뭇 다른 통합학교이며,

지난 세기동안.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스타이너 교육 시스템은 80년대 이후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시위주의 기존 교육 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90년대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한 대안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새로운 형태 학교에 대한 탐구는 향후 우리나라 학교 건축의 지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본 글 중 2장에서 소개될 독일의 스타이너 학교에 대한 글과 사진은 2004년 2월 발간된 건축 저널지³⁾에서 발췌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1. 괴테아눔의 후에 : 발도르프 학교

건축을 전공하는 우리에게 루돌프 스타이너는 괴테아눔의 설계자로 익숙하나 철학자, 언어학자, 자연과학자, 수학자, 저술가 그리고 사상가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부분 독학하였다 한다.

그는 괴테의 유기체 사상, 특히 형태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통합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학을 제창하였다. 인지학은 인간과 삶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제시하였고 특히 교육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괴테아눔과 발도르프 학교 설립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다.

* 정회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건축사

1) 발도르프학교는 스타이너 학교(Steiner school)라고도 하며, 발도르프교육은 스타이너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1919년에 최초의 발도르프학교가 생긴 이후부터 21세기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혁교육의 모델이 되어 왔으며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 44차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 21세기 개혁교육의 모델로 선정되었고 미래에도 살아 있는 교육 모형으로 더욱 발전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국 스타이너 교육협회가 2003년 사단법인으로 발족 활동 중에 있다.

2) Anthroposophy는 인류를 뜻하는 anthrosos와 지식을 뜻하는 sópos의 합성어이다. 스타이너의 인지학은 본질적인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기초하여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 관점으로 말할 수 있다.

3) Human Huber, The architectural review, 1284, 2004. 2. pp. 44-50.

본장에서는 발도르프 학교에 대해 우선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루돌프 스타이너의 사상과 교육 이념이 쾨테아눔과 발도르프 학교 건축의 형태와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졌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1)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

스타이너 학교 혹은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자유 발도르프 학교(Freie Waldorf schule)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립의 종합학교(comprehensive)로서, 발도르프-아스토리아 담배공장의 소유자인 에밀 몰트(Emil Molt)가 스타이너에게 교육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공장의 이름을 따 발도르프라 하였고, 교육은 사회의 다른 경제영역이나 법적 제도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자유 발도르프 학교'라고 하였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교육철학과 이념에 기초를 하고 있는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는 독일 전역에 걸쳐 한 세기 동안 성장하여 현재 그 수가 185개교에 이르며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였던 슈투트가르트에는 현재 약 1,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는 전 세계에 확산되어 약 600여개가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급진적인 보급이 이루어져 일본에도 몇 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있다고 한다⁴⁾.

발도르프 학교는 학제간(초중고) 구별이 없이 한 학교 안에 모든 학년이 함께 생활하며 남녀 합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지며 교육평등에 기초를 둔 일련의 교사들에 의해 운영된다.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사고, 감정, 의지의 총합을 강조하고 서구문명의 몸/마음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인간으로서의 책무감과 함께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발도르프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발달에 따른 여러 단계⁵⁾들에 대한 자각된 인식에 맞추어 디자인되어지며 학생들은 몇 년 동안 같은 교사들에 의해 지도되어져 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⁶⁾.

4) 정영수, 발도르프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한독교육학 연구, 제1권, 제1호, p.40.

5) 스타이너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특성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6) The architectural review, op.cit..

2) 루돌프 스타이너와 쾨테아눔(Goetheanum)

쾨테아눔은 인지학에 바탕을 둔 스타이너의 예술활동과 강연활동을 보존하기 위하여 스위스 도르나하의 동산에 1920년 2개의 돔 형식의 건축물(제1 쾨테아눔, <그림 1>)로 탄생되었다. 스타이너는 이 건축물을 쾨테아눔이라고 명명하여 인지학을 위하여 쾨테의 작품들이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리고자 하였다. 그는 쾨테아눔을 통하여 건축을 인지학과 연결짓는 매개체로 전제한 인지학적 건축(anthroposophical architecture)'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탄생시켰으며 건축예술 뿐 아니라 조각예술과 수공예술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쾨테아눔이 건축되던 시기는 슈투트가르트에서 '교육예술' 안에서 새로운 자극으로서의 학교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그의 교육 이론이 정립되는 때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쾨테아눔은 스타이너의 예술과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이념이 반영되어졌으며 여기서 구현되었던 건축 어휘들은 향후 지어지는 발도르프 학교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한다.

3) 인지학적 건축(anthroposophical architecture)과 쾨테아눔

루돌프 스타이너는 인지학(Anthroposophy)을 인간의 정신을 세계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으로까지 이끄는 인식의 길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과 세계의 정신적 본질을 직관하도록 인간의 인식능력을 발달시키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세기동안 인지학은 예술, 종교와 과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학을 적용한 학교, 관련 학회, 사회 병리 치료, 병원, 은행, 농장, 제약회사 등 약 10,000여개의 조직체가 생겨났다⁷⁾. 쾨테아눔은 이러한 여러 분야의 노력을 연결하고 인지학의 상호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쾨테아눔은 스타이너에 의해 1913년 개략적인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며 1920년에 제1쾨테아눔이 목조로 완성되어 개관하였으나 1922년 화재로 소실되어 1928년 제2 쾨테아눔<그림 2>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복구되었다. 많지 않은 스타이너 작품들은 건축 양식사적으로 독일 표현주의로 분류되

7) <http://www.steinercollege.org>



그림 1. 제1 쾨테아눔(1913-20)



그림 2. 제2 쾨테아눔(1928)



그림 3. 쾨테아눔 내부 계단실



그림 4. Eurythmy Houses(1920)

기도 하지만, 조형의 특이성과 독창성으로 말미암아 특정 건축 양식으로 구분 설명하기보다⁸⁾는 스타이너의 세계관, 우주관의 형상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인지학적 건축(anthroposophical architecture)으로 분류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제1쾨테아눔은 큰돔과 작은돔을 조합시킨 형태가 잘라내듯이 시공된 벽면장식과 상호 어우러져 조소적인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 두개의 돔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여 이들을 통해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되는 데카르트적 2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통합된 동질적인 세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이는 정신작용에 의하여 육체와 영혼의 연결이 가능하고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로 작용될 때 비로소 참다운 의미의 인간존재가 가능하다⁹⁾는 스타이너의 인간관이 건축 형태로 표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제2 쾨테아눔은 단일체 형태로 조각적인 형태 자체에 의해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선의 운동과 형태의 유기적 변형보다는 요소들의 융합과 단일체의 절삭이라는 형태의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¹⁰⁾ 쾨테아눔의 중심부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과 무대를 가진 오디토리움이 있으며 여러개의 강의실, 편집실 그리고 도서실과 미팅 룸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 기능들은 외부로는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 공간의 간결한 조형은 놀라울 정도의 기념비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이어진 부정형면이 전체적으로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즉 완전히 유기적이며 주물과 같은 일체성을 가지는 이 건물은 통일된 정신의 창조물로 표상되고 있다¹¹⁾.

이처럼 인지학에서의 건축은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을 지향한다. 하지만 3차원의 형태 전개를 유기적이고 파동치는 선형의 리듬으로 구조와 장식의 융합을 만들어낸 아르누보 양식이나 건축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고 유기체 조직의 세부 구조와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초기 표현주의적 유기적 건축 또는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물학적 연상을 통해 건축 공간과 형태를 추상화하려고 한 설리번(L.Sullivan)이나 라이트(F.L.Wright) 건축과는 또 다른 유기적 건축을 구현하였다.

즉 인지학에서의 건축은 자연모방이 그 본질이 아니며 만들어진 유기체(생명체)의 설계가 그 목표이다. 스타이너는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인간의 몸처럼 머리 부분, 가슴부분,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체계 등 세부부분으로 비유하면서 각 기관들의 기능은 다르지만 이들이 적절하게 조정될 때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삼중적 사회질서(threefold social order)라고 칭하였다. 이러한 통찰은 건축 역시 하나의 유기체로 해석되어 이를 통해서 전체성(wholeness)이 생겨나고 전체성은 개별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관계성과 영향들을 건축 형태와 공간에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지학적 건축은 지적 탐구에 의해 접근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안에서 눈

8) D. Sharp는 Steiner's work falls into no stylistic category.라고 하였다. Dennis Sharp,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a Visual History, 1972, pp. 46-7.

9) 박의수, 발도르프교육과정과 운영방법, 교육철학 13, 1995, p.124.

10)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spacetime, 2001, p.261-262.

11) V.M.Lampungnani, Architectur und Stadtebau des 20 Jahrhuncerts, 김경호 역, 기문당, 1999, p.84.

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발견하는 영혼에 중재된 생명감 넘치는 건축이 된다. 예술(건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스타이너의 자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정한 예술가가 추구하는 길은 살아 움직이는 정신을 향한 길이다.... 아름다움이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에 부여된 관념이 아니라 정신적 형태가 부여된 감각지각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예술이란 정신세계가 감각지각 가능한 세계로 변형된 영역이다.¹²⁾ 즉 인지학에서의 건축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인 통찰의 토대 위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지학적 건축의 특성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전체성(wholeness)과 정신성(spirituality)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예술이 가지는 전체성(통합성)과 정신성의 강조는 스타이너의 교육 이론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발도르프 교육의 교과운영에서 예술과 공예가 중심 교과목인 점 그리고 교과목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며 교육방법 역시 예술적인 활동과 통합하고자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논한 스타이너의 예술(건축)과 교육에 대한 통찰이 어떻게 결합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추적하고자 한다.

2. 키르크하임(Kirchheim)의 스타이너 학교 (Steiner schools)

본 장에서는 최근 독일 키르크하임(Kirchheim)에 신축되어진 스타이너 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되는 학교는 공업지역 미개발지에 1997년 작은 규모의 학교가 지어지고 2년 후 큰 규모의 학교를 계속 확장한<그림 5 참조> 전형적인 발도르프 학교이다. 아래 글은 2004년 2월 발간된 the architectural review지¹³⁾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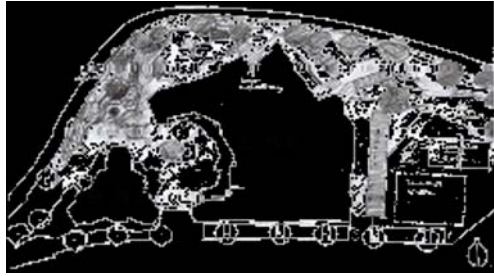


그림 5. 키르크하임 스타이너 학교 배치도

1) 키르크하임 스타이너 학교 설립 과정

키르크하임(Kirchheim)의 스타이너 학교는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어졌으며, 처음에는 학부모, 은행대출 등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한명의 교사와 1개 학급으로 시작하였으나 주변 자매 학교들의 도움을 받아 매년 한 학급씩 증설해 나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독일에서 이 같은 사립학교들은 학생수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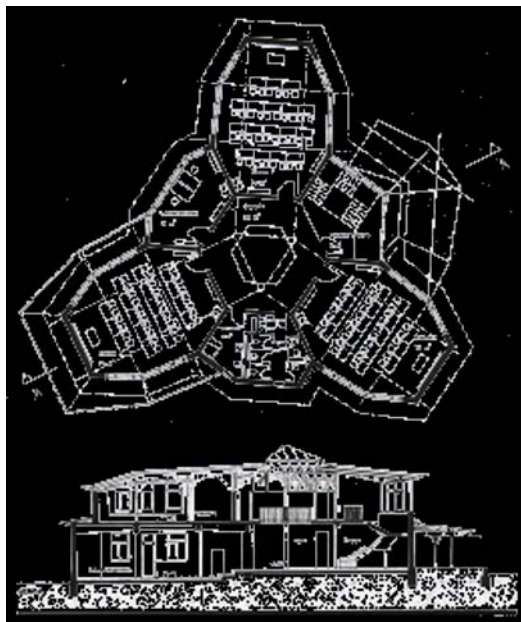


그림 6. 작은 학교 2층 평면도와 단면도

1994년 이 지역에 작은 스타이너 학교가 우선 설립되어졌으며 1996-97년에 와서 한 독지가에 낮은 지가로 제공한 부지위에 새로운 학교를 짓

12) R Steiner, Rudolf Steiner, An Autobiography, trans. Stebbing Rita, 1997, p.128.

13) The architectural review, 1284, 2004. 2. pp. 44-50.



그림 7. 작은 학교의 전경



그림 8. 정6각형태의 교실



그림 9. 중심공간인 홀 천장

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건축 설계는 피터 휘브너(Peter Hübner)이 맡았는데 그는 독일 모르겐스테른(Morgenstern, 1987) 학교를 건축함에 있어 주변의 버려진 건물에서 폐자재들을 모아 재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학교를 완성한 재능있는 건축가이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처음 지역주민들은 키르크하임의 학교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어지길 원하였으나 설계자가 폐자재 활용이 쉽지 않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여 새롭고 보다 자유로운 학교 건물을 짓기로 수정 결정하였다. 그는 설계 작업과 건설 방법을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청에 설명하였으며 매년 한 학급씩 증설해 나가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건축가는 이상적인 교실을 결정하기 위해 6학년과 7학년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학생들 스스로 진흥으로 1:10 스케일의 교실 모형을 만들도록 하였고 다음은 교실 가구 모형을 그리고 교실 벽과 지붕을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가는 목구조의 원리들을 주지시키고 8m 스패의 문제점과 목재 부재 규격의 한계를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협동과 학습과정을 통해 최종 교실 계획안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열망과 기금의 추가 확보에 힘입어 5개 교실과 활동실을 가진 새로운 2층 건물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8-99년 175명의 학생, 18명의 교사(교장이 없는), 6개 교실을 가진 스타이너 학교를 완성하게 되었다.

2) 작은 학교(The Little School)

작은 학교의 부지는 킬크하임의 북쪽 한 공업지역의 평평한 미개발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경사진 들지로 경계지어져 있다<그림 5 참조>. 건축가는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작은 학교를 삼

각형 부지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시켜 전체 건물 그룹을 위한 일종의 뱃머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삼각축 계획(tri-axial plan)은 각 교실에 양방향으로의 충분한 일조<그림 8 참조>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삼각축이 만나는 각 코너에 창고와 화장실을 두게 하였다. 큰 크기의 활동실(eurythmy¹⁴⁾ room:다목적실)과 주 출입구를 마주하게 평면 계획<그림 6 참조>하여 동서축이 두드러지게 하였으며 이 주축은 건축 형태를 대칭되게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의 정육각형 홀은 공간의 중심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층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육각형 벽체, 위로 보이는 삼각형 천장 그리고 노출된 지붕 목구조 등은 전체 건물을 정돈된 질정으로 이끌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리고 홀의 낮은 부분은 활동실이 때때로 극장으로 사용될 경우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 방법은 콘크리트와 목구조를 이중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하부는 콘크리트, 상부는 목구조로 축조함으로써 경제성과 내화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목조 지붕은 내부에서 보이도록 하였고 지붕 구조는 내부 기둥들 덕분에 가벼운 부재로 구축됨으로서 보다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2층 창문 역시 구조적으로 내력벽 역할을 하는 1층의 창문보다 넓게 계획하여 부유하는 지붕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단일 마감재의 연속되는 벽체 구성

14) eu(좋은) + rhythm(리듬)에 해당하는 용어로 독일어로 발음하면 오이리트미라고 하며 이는 스타이너가 만든 독특한 동작예술이다. 스타이너에 따르면 오이리트미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소리를 보여주는 움직임의 예술이다. 이것은 최초의 발도르프학교 이래 현재 발도르프 학교에서도 전학년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eurythmy room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특별활동실 혹은 다목적실과 유사하리라 본다.



그림 10. 큰 학교의 1층 평면도

- 1.출입문
- 2.원형 극장
- 3.아고라 극장
- 4.관리제실
- 5.카페테리어
- 6.오이리트미
- 7.수작업실
- 8.교실
- 9.음악실
- 10.집회실
- 11.그룹활동실
- 12.재봉실



그림 11. 큰 학교의 2층 평면도

에도 불구하고 벽체 구조의 다양한 변화감을 주고 있다.

3) 큰 학교(The Big School)

작은 학교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말미암아 큰 학교의 건립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작은 학교 완성 후 단지 2년만에 큰 학교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휘브너(Höbner)가 처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매 가을에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에 늘어나는 새로운 학급으로 인하여 건물의 확장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좀 더 세분화된 예술공예실과 13개 교실이 필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전체 학생들이 모여 축제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행할 수 있는 극장이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 극장 공간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졌으며 한편은 그리스 원형극장과 같은 극장<그림 12>을 선호하였고 또 다른 편은 아고라(market-place) <그림 13>와 같은 극장 또는 거리(street) 같은 극장을 선호하였다. 그의 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건축가는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 이 두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즉 2개 극장(아고라와 같은 극장과 원형극장) 사이에 무대를 두는 안을 제안하였다(그림 10, 11 참조). 그리고 아고라 극장에 의해 형성된 개방된 홀은 주 출입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다양한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중정은 작은 학교와 후에 건립된 큰 학교 사이에 두고 각각의 출입구를 마주보게 계획하였다. 중정은 두 건물 형태들로 인해 둥글게 형성되며 열주

(colonnades)로 에워싸여지고<그림 15 참조>, 이러한 중정 배치는 큰 건물을 주먹 쥔 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고 엄지손가락이 도로에 따라 길게 나와 있는 형상을 하게 한다<그림 14 참조>. 큰 학교의 주출입구는 중정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학교 카페테리어로 이끌고 있다. 중앙의 3개의 실(market place, 무대, Greek theatre) 사이의 벽은 가변식으로 하여 이를 닫을 경우는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이를 열어 개방된 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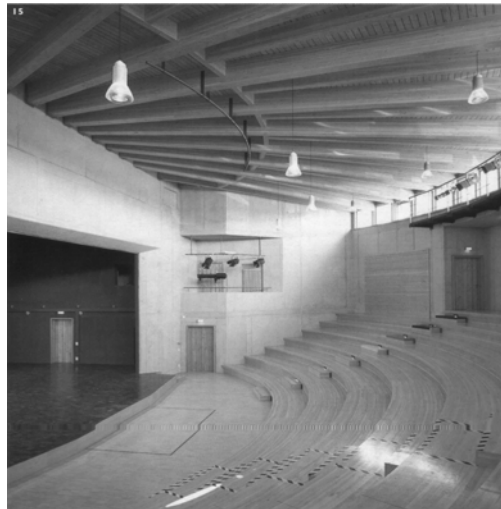


그림 12. 원형 극장 Greek theatre



그림 13. market-place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마감공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바닥 마감, 타일공사, 스테인드글라스, 내부 페인팅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스타이너 학교의 색상 선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의 결정은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의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공간은 놀이 공간, 운동장, 체험학습장과 많은 수목으로 주변 계곡의 자연을 재발견하도록 하였다. 거의 모든 실들은 학생들이 만든 그림과 공예품들로 인하여 살아있고 창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그림 16 참조>.

3. 맺음 글

앞 글에서 루돌프 스타이너의 사상과 교육 이념이 건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쾨테아눔과 발도르프 학교를 살펴보면 교육 이념이 학교 건축에서 어떻게 공간적 또는 형태적으로 구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향후 학교 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모습에 대한 작은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스타이너의 인지학, 교육 이념 그

리고 발도르프 학교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진 전체성, 정신성,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한다.

(1) 전체성(wholeness)

전인적 인간관에 기초한 스타이너의 교육이론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상호 개체간의 관계 즉 유기적(organic) 관계,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발도르프 교육 방향은 각 학생들의 적성과 재질에 따라 교육되어지며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교육가치를 목적을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反)엘리트주의적이다.

이에 따라 학교 건축에서 나타는 공간 역시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을 강조하며 예술과 공작 교육 그리고 교정(school garden) 활동을 위한 장소에 대해 상당한 공간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발도르프 학교들은 스타이너 교육 이념의 건축적 구현을 위해 학생들의 음악 활동, 발표회, 무용, 연극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실(eurythmy room), 강당(theatre) 혹은 커뮤니티 센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무대에 선다는 것은 자기 확신의 발전을 위한 한 방편이며 사회에서 어떤 한 위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개개의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전형적 사회활동을 경험하도록 한다.

건축 형태도 쾨테아눔과 발도르프 학교 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부정형면이 전체적으로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완전히 유기적이며 주물과 같은 일체성을 가지는 통일된 정신의 창조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건축 형태의 창조는 전체를 부분의 합으로 이해하는 기계적인 사고나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자체로서 총합된 것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



그림 14. 도로에 면한 학교 파사드



그림 15. 중정에서 바라본 큰 학교



그림 16. 2층 홀 부분

2) 정신성(spirituality)

스타이너의 사상은 정신성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며, 현대문명의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위해 정신성의 회복을 강조한다. 발도르프 학교는 이러한 정신성의 회복의 모태로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학교들이 지적 능력과 오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감각적 체험을 강조한다. 아이들은 모든 감각적 체험을 통하여 영혼과 육체적 리듬에 영향을 미쳐 신성한 정신성을 발견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교육되어 진다¹⁵⁾.

이러한 교육 사상은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다 미적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해 받은 모든 인상들은 진정 그런 것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방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적 환경과 함께 발도르프 학교 건축은 온도 감각, 시각, 미각, 후각 등의 외적 감각을 중요시 한다.

독일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의 주요 재료가 목재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나무가 가지는 촉감을 어린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배려이다. 또한 인공적인 교구보다는 자연을 통한 체험과 학습을 강조하며, 인공의 빛 보다는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모든 영역에 걸쳐 풍부한 감각적 인상들로 인해 학습과 연구를 자극하고자 한다. 또한 교실 외에 수작업을 위한 작업실, 오이리트미(eurythmy room), 월말 행사와 연극 상연을 위한 무대들은 공간의 외적, 내적 기능에 맞게 예술적 방식으로 형성되어 교사와 학생에게 그리고 학교의 여러 행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극과 영감을 주도록 계획되어 있다.

3) 공동체 의식

본 글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발도르프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고 학교에서, 학교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한다. 즉 국가의 지원 아래 운영되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설립하는 학교이다. 이는 루돌프 스타이너가 쾨테아눔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듯이, 발도르프 학교의 건축가들은 설계과정에서부터 학

생과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또한 공사에도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협동적이고 유기적인 의미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스타이너 교육이념과 발도르프 학교의 설립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90년대이후 대안학교¹⁶⁾, 대안교육의 말이 사용됨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⁷⁾. 특히 최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등 고교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어 대안학교가 정규학교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학교 모습이 보다 다양해질 것이고 그 대안적 유형으로서 발도르프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출현하리라 보이며 이는 학교 건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발도르프 교육의 영향은 기존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이의 수정을 자극함으로써 교육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교육의 새로운 전환은 학교 건축을 그동안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관료주의적 통제체제로서의 학교-기계적 건축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건축 어휘들이 학교 공간과 형태에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Human Huber, The architectural review, 1284, 2004. 2.
2. 정영수, 발도르프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한독교육학 연구, 제1권, 제1호.
3. <http://www.steinercollege.org>
4. Dennis Sharp,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 a Visual History, 1972.
5. 박의수, 발도르프교육과정과 운영방법, 교육철학 13, 1995.
6.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spacetime, 2001.
7. V.M.Lampungnani, Architectur und Stadtebau des 20 Jahrhuncerts, 김경호 역, 기문당, 1999.
8. R Steiner, Rudolf Steiner, An Autobiography, trans. Stebbing Rita, 1997.
9. 정윤정,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한국의 대안교육, 한독교육학연구 제3권 제1호.

- 16) 대안학교란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 17) 정윤정,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한국의 대안교육, 한독교육학연구 제3권 제1호, pp.237-246. 참조

15) 정영수, op.cit.,